“연등에 부대 발전 · 무사고 기원 담아요”

선운사 · 송광사, 육군 35사단서 ‘당산연등제’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보병사단(사단장 최창규)부대 안전 및 무사고를 기원하는 당산연등제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4월 22일 전북 임실 소재 35사단에서 ‘ 당산연등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당산연등제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최창규 사단장 및 부대 관계자, 지역불자, 장병 등 1천여 명이 동참했다.

부대 영내 곳곳에 봉축 연등이 장엄된 가운데 봉행된 행사는 봉축 법요식에 이어 축하공연, 점등식, 제등행렬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동참한 대중은 법진 스님과 덕산 스님의 인례에 따라 부대의 무한한 안녕과 장병들의 행복한 군 생활을 기원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항상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수처작주의 정신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명의 등을 밝혀 항상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서원을 담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불교의 호국애민 사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지표가 돼왔다”며 “군장병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선운사, 송광사 대중스님들과 지역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요식에 이어 신시예술단과 35사단 댄스동아리 ‘솔져’, 군악대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최창규 사단장은 직접 북과 북채를 잡고 사철가와 사랑가를 열창해 참석 대중들과 병사들을 즐겁게 했다.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손에 들고 호국 충경사까지 제등행렬을 펼치며 부대 발전과 장병들의 무사고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청소년 문화예술경연 ‘동백연’

지장천일기도 800일 회향도

전북지역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22일 선운사 일원에서 ‘제40회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동백연’을 개최했다.〈사진〉 동백연은 지역 청소년들의 효행사상을 고취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사로 고창문화원과 선운사가 공동주최했다.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동백연 개막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송영래 고창문화원장, 고창관내 각급 초중등교장, 학생 ·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동백연은 예술경연과 민속놀이 체험, 문화체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편, 선운사는 24일 지장보궁 천일지장기도 800일을 회향하고 9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강주 재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각자 느끼는 시간은 모두 같지 않을 것이다”며 “기도와 수행의 시간은 자신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왜군 맞선 서산대사 호국정신 기리자”

해남 대흥사,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봉행

서산대사 탄신 496주년 기념
유 · 불교식 국가제향 재현해
사부대중 3000여 명 운집
청소년 나라사랑 사생대회도

해남 대흥사는 4월 22일 경내에서 서산대사 탄신 496주년을 기념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유교식과 불교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국토는 왜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했다. 이에 서산대사 휴정 스님(1520~1604)은 선조의 부탁을 받고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 의승군의 궐기를 호소한 뒤 자신도 법흥사에서 문도 1500명의 승군을 조직,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며 전장에 나섰다.

이러한 서산대사의 구국의 마음과 호국불교의 가치를 추앙하기 위한 국가제향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몰아내는 데 크게 공헌한 서산대사의 탄신 496주년을 기념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4월 22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정찬 스님, 조계종 법규위원장 몽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우기종 전남 정무부지사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유교식과 불교식을 함께 진행한 서산대제는 조선시대 예제관 행렬로 시작해 종묘제례보존회 집전 아래 국가제향으로 재현됐다. 이어 서산대사의 가르침과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법요식이 열렸다.

법요식에서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휴정 스님의 큰 뜻을 많은 분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날 국가제향의 의미를 살려 향후 휴정 스님의 뜻을 널리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서산대사의 헌신과 희생은 후손들이 한결 같이 따르고 실천해야할 삶의 나침반”이라며 “서산대제가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본받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흥사 성보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는 전국 초중고생 1천여 명이 참가한 ‘제22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와 사생대회’가 함께 열렸다. 해남교육지원청과 (사)서산대사 호국정신선양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운문, 산문, 사생, 서예부분에 걸쳐 학생들의 경연이 펼쳐졌다.

한편, 해남 대흥사 서산대제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해 왜적에 맞서 싸운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추모 · 선양하기 위해 정조 때부터 국가행사로 이어져온 제례이나 일제강점기에 폐지됐다. 이후 대흥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옛 문헌 기록 등을 근거로 조선시대 서산대제 국가제향을 위한 예제관 행렬을 재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 해군 3함대 · 해남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제향이 이뤄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병마 이겨낼 희망 음악으로 나누다

(사)나누우리, 난치병 환우 돕기 음악회

(사)나누우리는 4월 24일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에서 ‘희망나눔 산사음악회’를 열고, 난치병 환우 3명에게 치료후원비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작은 음악회를 열어 중증어린이 환우들에게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는 국제구호봉사단체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나누우리가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에서 희망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4월 24일 (사)나누우리가 주최하고 실상사(회주 진성)가 주관한 이번 희망나눔 산사음악회는 나누우리 부이사장 만우 스님을 비롯한 나누우리 이사스님들과 마하연승가회 스님들, 일광사 승천 스님, 대구혜인정사 진송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1부 난치병환우 치료비 전달식에서 (사)나누우리는 급성골수모세포증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우빈(19세) 군 등 청소년 3명에게 치료후원비 각 10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나누우리 부이사장 만우 스님은 “나누우리는 네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다”며 “오늘 전달된 후원금이 작은 금액이지만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실상사 회주 진성 스님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에게 작지만 큰 희망을 주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자비나눔 산사음악회에는 실상사 법회 10주년을 맞아 실상사 밴드와 이계향 성악가가 출연해 신나는 난타공연과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다. 대구혜인정사 진송 스님과 오동석 진북동파 출소장은 색소폰 연주를 선사했으며, 실상사 밴드 색소폰 동아리 회원들이 흥겨운 합주를 했다. 또 전통춤 공연과 민요 한마당이 펼쳐졌으며, 가수 이영주 · 박정식 씨가 노래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문화행사 대규모로 펼쳐져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가 대규모 봉축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봉축위는 4월 23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제13회 전북어린이잔치와 행복바라미문화축전, 전북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어린이잔치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뉘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또 사경, 연등 만들기, 다도 등 불교문화 체험활동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성우 스님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은 행사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행사를 펼쳤다.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불교합창제에는 금산사 바라밀 합창단, 군산 그린비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부처님세상 합창단, 참좋은 우리절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 만월사 합창단이 참가했다.

또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초청가수 오은주와 현당이 출연하는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